

제 53 강

첫 순교자 스테반과 첫 이방인 개종자 코넬로(사도행전 연구 II)

■ 성경본문 사도행전 6:1-7:60 ■

프렐류드(Prelude)

지난 제 52 강, ‘오순절 성령강림과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시작되고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사도행전 1-2장).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인간들 손에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되고(행 5:17-18), 안으로는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Jewish Christian)과 ‘헬라 그리스도인’(Hellenistic Christian)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헬라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행 6:1). 이때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고 구제와 봉사는 헬라 지도자 7인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위임함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7인, 그중에서도 탁월했던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은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테반은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 세계를 구원하시는 신비한 드라마를 열어가셨습니다.

I. 주요 내용

1. 새로 등장한 이방인 지도자들(사도행전 6:1-15)
2. 스테반의 설교(사도행전 7:1-53)
3. 스테반의 순교(사도행전 7:54-60)
4. 이방인 개종자, 고넬료(사도행전 10:1-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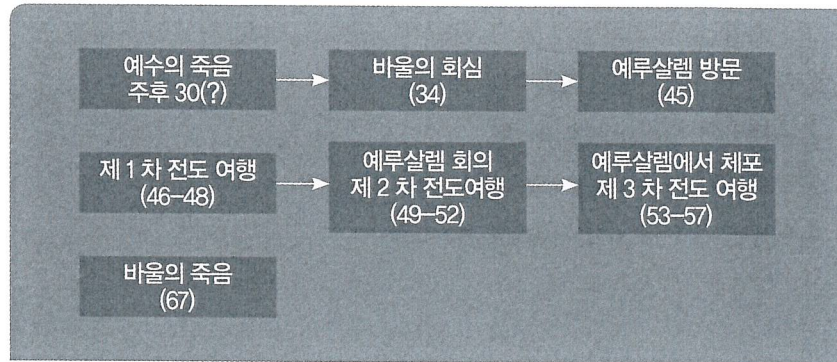
II. 시대적 배경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그룹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헬라 유대인이란 주전(BC) 722년 북왕국이 앗수르에게 멸망하고 수만 명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이방 피가 섞인 채 이방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바빌론에 망한 남왕국 유대인도 같은 운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전통을 잘 보존하여 왔습니다. 이들을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밖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개종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자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테반과 빌립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지도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고대 그리스어와 그리스 사상을 통달한 ‘엘리트’(elite)였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새로 등장한 이방인 지도자들(사도행전 6:1-15)

오순절 성령강림을 계기로 예루살렘교회는 날로 성장했습니다.(행 6:1, 7) 여기에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크고 작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헬라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헬라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열두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담하고(행 6:4) 구제 및 봉사는 헬라 유대인 중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뽑아 그들에게” 안수하고 위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행 6:3). 이때 선출된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았습니다(행 6:5-6).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역의 분담으로 새로운 사역의 틀을 만들었습니다(행 6:8-10). 그러나 대표적인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자”(행 6:8) 정통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갈등은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전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한계를 뚫고 진행되었습니다.

2. 스테반의 설교(사도행전 7:1-53)

문제는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행 6:8) 하기 시작하자 어떤 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테반을 체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한 스테반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가장 높이 올린 설교가 되었습니다.

스테반이 행한 설교는

1.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이야기
2. 애굽의 흉년 이야기
3.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이야기
4. 모세의 출생, 공주의 아들, 살인, 도피, 하나님 만남, 출애굽, 40년 광야생활, 아론의 금송아지, 장막이야기
5.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을 아들 솔로몬이 지은 이야기까지 상세히 포함하고 있었습니다(행 7:2-47).

스테반은 그 누구보다 구약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7장 48절에서 53절이었습니다.

1.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신다 대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행 7:48-50)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2. 그리고 스테반은 이어 유대 지도자들을 ‘목이 끈고 ...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저주하였습니다.(행 7: 51)

3. 스테반의 순교(사도행전 7:54-60)

이 설교와 저주에서 성이 난 군중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 돌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이 순교 장면은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1. 예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눅 22:66-67) 앞에서 심문당하셨듯이 스테반도 이와 유사하게 심문을 당했고(행 6:12),

2. 예수의 심문에 “거짓 증인들”이 등장했듯이(눅 23:2) 스테반에게도 그러했으며(행 6:13)

3. 예수와 스테반 모두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눅 23:5, 행 6:11).

4.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기도하셨듯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라고 부르짖었습니다.

5.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의 용서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눅 23:34) 스테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스테반은 예수의 참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을 통해 온 지경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4. 이방인 개종자 – 고넬료(사도행전 10:1-11:18)

첫 이방인 개종자는 당시 세계를 손 안에 넣고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방인 장교였습니다(행 10:2).

어느 날 기도시간에(행 10:30) 환상을 통해 “네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말씀 앞에 주저 없이 하인 두 명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옴바로 보냈습니다.

이 즈음에 베드로도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행 10:9).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담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은 편협한 유대인의 배타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속의 생물들은(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3-20) 불결한 동물로써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음식물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분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오후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행 10:33)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 “만유의 주”, “화평의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행 10:34-36).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행 10:38),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행 10:42, 43).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행 10:44)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행 10:46). 오순절 사건(행 2:1-4)과 흡사한 이 장면을 두고 ‘가이사랴의 오순절’, 혹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넬료와 모인 이방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행 10:44-48).

침략자 고넬료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우리는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했던 처음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인간의 교만과 차별로 인해 깨지고 분열되는 아픔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역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는 이 지상의 보이는 교회는 ‘양과 이리가 함께 있는 혼합체’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이 교회 안에도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모든 담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신비를 본 사람은 스테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울림’의 눈으로 본 유대교와는 달리 스테반은 아브라함-모세-다윗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고, 해석하고, 선언했습니다.

스테반은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보고 외친 첫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를 지켜보던 사울(바울)(행 7:58)에게 스테반의 신앙은 무형의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3.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과 광야의 ‘장막’을 대비시키는 대목이 스테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죄목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이끌어 가신 ‘이동하는 임재’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광야교회’(행 7:36)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는 참 교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손으로 ‘성전’을 크게 짓고 하나님을 그곳에 거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스테반은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행 7:48). 여기서 유대교는 분노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 쟁론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신학적 질문의 처음 화두가 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참 교회는 이동하는 광야교회인가? 손으로 높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인가?”라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4.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회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주 구원을 증언한 한 표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증언자였습니다.

사도와 평신도는 계급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소명자들이었습니다.